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미니 프로젝트

분석 및 가공: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All Reserved. 2009

테마명:

## ‘Material lightness’

- 플렉시글라스와 페이퍼 우드의 모든 질감
- 표면 텍스처어를 강조하는 밝은계열 칼라
- 모크 화이트 계열의 확장

-CUBE® 카테고리:  
Humannature

## Material lightness color storyte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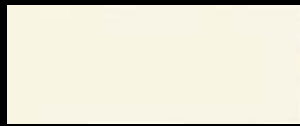
# 'not so intensive, not so primary'

### 1. 부드럽고 섬세한 뉘앙스 Material lightness

2009년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LED 라이팅 컬러의 부각이다. 이는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져 새로운 도심 환경을 구현하는 전세계적인 시티 프로젝트 일환으로도 급부상 되고 있다. 이처럼 아웃도어룩(outdoor look)을 확장하는 각종 건설분야와 도심 프로젝트(city project)는 LED 라이팅을 접목한 화려한 스펙타클 (spectacle)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로우 머테리얼(raw material)에 대한 관심은 자원보존과 지구온난화 라는 사회문화 이슈를 동반, **ethical** 적인 디자인 강화가 또 다른 중요성을 어필한다. 본 테마 'Material lightness' 에서 주목하는 새로운 밝은 계열들의 향연은 단지 색상과 색조 뿐만 아닌 원초적인 소재 감과 재질 감을 동시에 강조하는 부분으로 **everyday** 라이프 스타일에서 도출되는 밝은 색조를 동반하는 컬러 하모니움이 중요하다. 즉, 로하스, 웰빙, 에코 등 라이프 이슈를 통해 확산되는 'Material lightness' 컬러는 원초적인 재질이 갖는 화이트 색조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에 페이퍼 우드 (paper wood) 와 마치 크리스탈과 같이 투명함이 좀더 강화된 아크릴 계열 소재 플렉시 글라스 (PLEXIGLAS) 가 주목된다.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지난 몇 해 동안 소프트하고 사랑스러운 파스텔 색상은 이제 '가와이' 라는 팬시 디자인으로 흡수되어 더 이상의 모노크롬 (monochrome) 파스텔 색상 매칭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파스텔 컬러를 대체하는 좀더 미니멀 하고 심플한 중간계열의 색상인 뉴트럴(neutral)이 부각되어 약간은 그레이 빛을 띄는 소피스틱 (sophistic) 한 모크 화이트 계열이 중재되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2010년을 겨냥하는 모크 화이트 계열은 다시 새로운 변환 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소재와 재질(material)에서 출발하는 **Material lightness** 계열이 기존의 뉴트럴 컬러계열을 대체하기 시작한다. **Material lightness** 컬러레인지 (color range) 는 원자재에서 영감(inspiration)을 받는 모크 화이트 계열로 특히, 표면 재질감을 동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진다. 매끈한 광택을 동반하는 플렉시 글라스 화이트와 약간은 거칠고 매트한 페이퍼 촉감을 전달하는 마닐라산 옐로우-화이트가 명백해지는 2010년 시즌이다.

## 2. Color effect 'bi or tri-color Monochrome range'

페이퍼 우드와 플렉시 글라스 재질을 중심으로 밝은 모크 화이트 계열은 표면 텍스처 (texture)를 동반하게 되어 미세한 뉘앙스를 갖게 된다. 노르스름한 페이퍼 우드 색감은 화이트 계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에쿠르(ecru)라고 불리는 미가공 상태의 러그 (rug)한 색감을 말한다. 이들은 서로 단색조의 모노크롬 하모니를 연출하는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혹은 세가지 컬러로 단색 조를 이룬다.



#CEC1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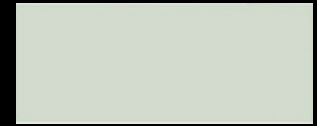
#D0CDC2



#CEC1B2



#DED3B4



#D2DBCD



## 3. 전자기파 방지 코팅

전체적으로 중간색 계열을 어필하는 뉴트럴 (neutral) 컬러보다 좀더 밝은 색감과 표면이 코팅된 듯한 우유 빛을 띄게 되는데 이는 2010년부터 강화될 전자기파 방지 코팅에 의해 색감 자체가 소프트 해 지는 색감연출을 감안한 것이다. 종이와 마분지에서 출발하는 화이트 컬러. 건축 마켓 작업(모형제작)에서 영감을 받는 컬러로 가볍고 심플한 컬러 톤들이 미래 환경 컬러 특히, 건축 컬러로 지배된다. (최근 건축가들이 소개하는 크고 작은 중요 프로젝트 동향) 밝은 색조는 점점 차가워지며 재질로는 플렉시 글라스와 우드 페이퍼를 믹스해 도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페이퍼 재질 컬러가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시도한다.





**\*References:**

- Kolumbia Museum in Koln
- Hotel Puerta America Piso/  
Zaha Hadid
- Skeleton Luggage /  
Alexander McQueen
- SANAA

● 볼륨, 웨입, 유기적 곡선과 함께 적용되는 **Material Lightness** : 매끈한 표면 감이 중요

플렉시 글라스 아크릴 계열 재료의 화이트 컬러는 최근 디자이너들이 주목하는 ipod 화이트와 비슷한 컬러감을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매끄럽고 퓨어(pure)한 화이트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이고 심플한 웨입 (shape)과 자연광 또는 LED화이트 조명에 의해 좀더 매력적인 모크 화이트 계열을 어필한다는 것이다. 또한 라운딩(rounding) 웨입이거나 플랫(flat)한 웨입의 특징을 보이며 프로토타입(prototype-시모델)과 같은 미래적 무드를 어필하는 시도적 볼륨과 유기적 곡선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시간성과 미래지향적인 구조와 형태가 서로 절충되는 알카익(archaic)적인 코드가 융합되는 특징이 나타나는 데 보통 우드와 시멘트 재료와 동일한 공간에 연출되어 모크 계열의 밝은 색조 화이트가 퓨어한 감성을 부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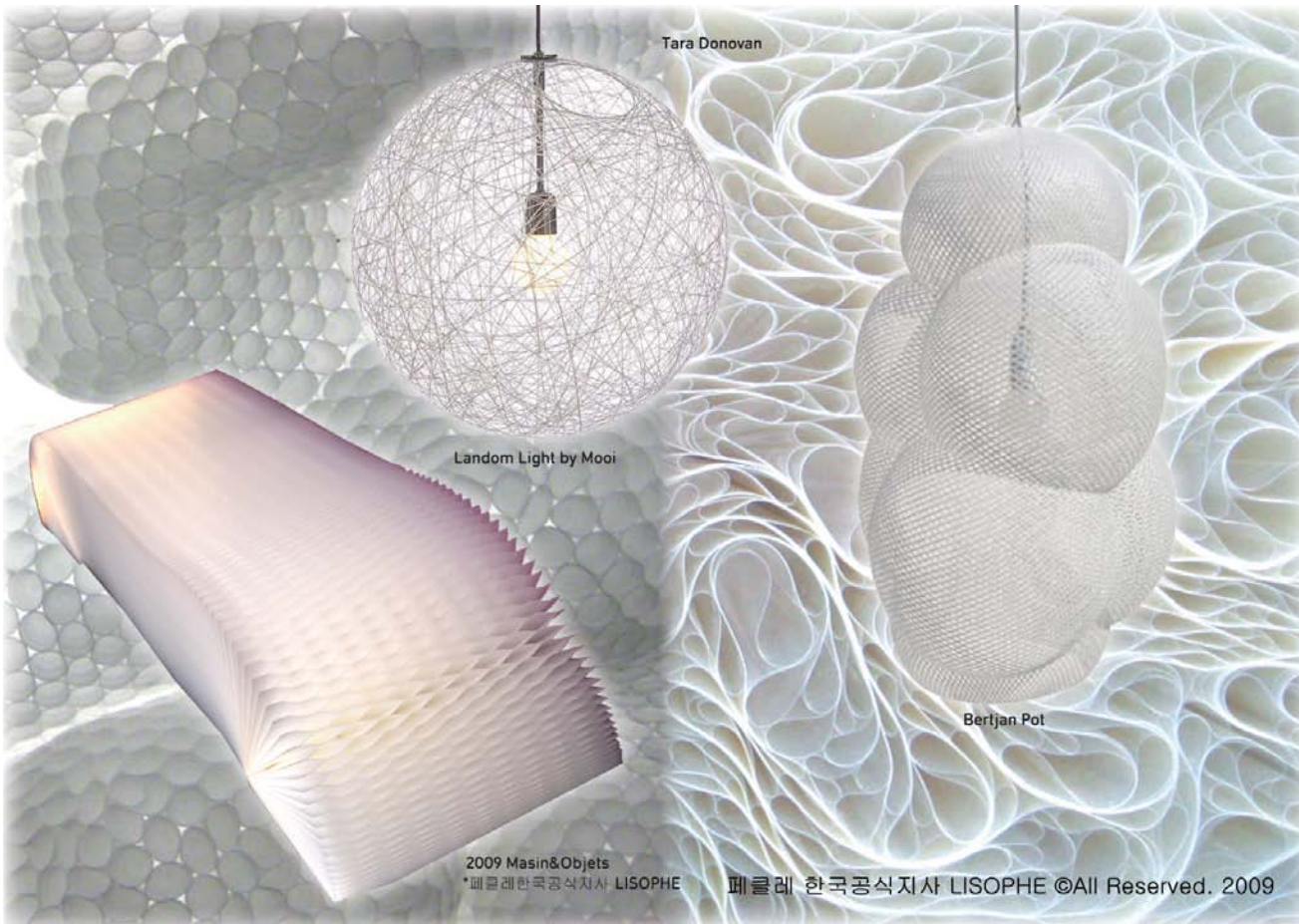
**\*References:**

- Cyberoid/ HAL
- Hotel Puerta America Piso/ Zaha Hadid
- Skeleton Luggage / Alexander McQueen

● **로봇공학 + 심리학 + 행동과학 = '휴먼노이드 (humanoid) vs 사이버닉스 (cybernetics)'**

판타지를 동반하는 너무도 많은 테크노-퓨처리스틱 무드(techno-futuristic mood)와 휴먼-로봇과 같은 새로운 사이버네틱 (cybernetic) 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너무도 많은 기술과 스피드의 요구는 결국, 근본적인 파워(성능)를 잃게 한다. 반면, 컴퓨터 네트워크 web 2.0 은 컨퍼런스와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인간이 상상하는 미래, 인간을 중심으로 확장 되는 휴먼-테크놀로지를 정립해 나간다. 차가운 쿨 화이트 계열은 공상과학과 같은 미래를 지향한다. 즉, 유기적 곡선과 인체공학 적 설계로 시도되는 휴먼노이드 디자인(humanoid design)과 사이버노이드(cybernetic)와 같은 메카닉 (mechanic)한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적 기능에 집중되는 두 가지 형태의 미래환경이 명확해 진다.





**\*References:**

- Landom Light / Mooi
- Installation artist/  
Bertjan Pot
- Maison&Objets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Installation artist/ Tara  
Donovan

● 오리가미-지오메트리 (origami-geometry), 플렉스 글라스 재질 모크 화이트

오리가미(origami)란 일본어로 종이접기를 의미한다. 최근 유럽지역 시장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샵 디스플레이는 바로 ‘오리가미’ 컨셉이다. 미니멀 하면서도 심플함을 강조하는 오리가미는 신 모더니즘(new-modernism)을 표명하는 장식 디테일로 전통적인 방식과 신소재 사용이 절충되어 좀더 심플한 디자인과 기능, 변형된 형태와 사용 감을 절충하는 미래 디자인으로 판타지한 무드를 동시에 표명한다.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합성수지를 이용해 상당히 가볍고 얇은 소재가 100kg이 넘는 무게에도 끄떡 없는 모듈방식 간이 벤치로 소개된다. 또한, 3M소재 플라스틱 일회용 컵 수 만개를 이어 새로운 구조의 조명을 연출하는 Tara Donovan의 설치 작품이 새롭다. 화이트 LED와 매치되는 매끄럽고 심플한 모크 화이트 계열을 주목하자.



**\*References:**

-Maison&Objets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Installation artist/ Tara Donovan

● 시모델링 기술, ‘스테레오-리소그래피’ (prototyping technologies, Stereo-lithography)

리소그래피(lithography)란, 오프셋 (offset) 인쇄술 이라고도 부르는 직접회로를 만드는 기술의 일종으로 사진기술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빛에 의한 패턴의 형상화를 의미한다. 즉, 빛을 감지하는 레진 (resin) 및 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 표면에 특정 문양을 고정시키고 이를 빛으로 쏘아 그 형상이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테마에서 제시하는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테크닉은 빛을 통해 구현되는 입체적 패턴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리가미(종이접기) 또는 반투명 레진의 레이어링을 통해 Material lightness texture pattern을 제시한다. 최근 2~3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n) 북유럽 풍 패턴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로우 머테리얼 (raw material)이 갖는 텍스처 (texture) 자체가 라이팅 패턴화로 제시되는 모크 화이트 계열의 새로운 트렌드가 예측된다.





**\*References:**

- Installation artist/ Tara Donovan
- Olivomare restaurant
- Maison&Objets
-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새로운 조형미, 공간성, 효율성 (Visionary, Random, Poetic)

우리주위를 둘러싼 오브제들이 서로 다른 차원(dimension)을 제시하며 어찌보면 대충 만들어진 것과 같고, 어찌 보면 시적이고 서정적인 심플함을 구사한다. 시도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에서 출발하는 어딘지 미완성된 듯한 정제된 모습이 기능과 효율성, 공간성, 조형미 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석고, 마닐라산 페이퍼 옐로우 등이 라이팅에 의한 공간연출을 시도, 로우 머테리얼이 갖는 미 가공 상태의 새로운 심미성(new aesthetic- 럭셔리 의 또 다른 버전)을 발견한다.